

대규모 개발보다 도시재생 역점... 생활 인프라도 대폭 확충

'10+ α 중추도시권' 육성 어떻게 하나

6대 광역시·지역거점도시 집중 개발 특별법 제정 등 연내 추진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 대신 쇠퇴한 지방 중추거점 도시를 지원하는 '10+ α (알파)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조사에서 쇠퇴도시로 분류된 광주와 목포, 여수, 순천 등 지역 거점 도시가 중추도시권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등 과거 지역개발 정책이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박근혜 정부는 저성장 시대와 지역 개발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지자체 주도의 도시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국토부 박기풍 1차관은 "도시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권역의 성장을 견인할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균형발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추도시권 육성방안의 기본방향은 크게 도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그 발전의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허브앤스피크(Hub and Spoke)' 방식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를 연계 개발하는 '네트워크(Newwork)'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도시 중심형인 허브앤스피크

방식은 광주·대구·대전·울산·부산·인천 등 6대 광역시나 목포와 여수, 전주, 충주, 춘천, 원주, 제천 등과 같이 허브 역할을 하는 지역 거점 도시권을 집중 개발해 그 발전의 성과를 인근 위성도시까지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방식은 비슷한 규모의 중소도시를 상호 연계 개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중추도시권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지원할 방침이다. 순병석 국토정책국장은 "중추도시권은 지역 필요에 의해 추진하므로 앞으로 10개가 될 수도, 20개가 될 수도 있다"며 "지자체 신청 계획을 토대로 정부의 지원 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중추도시권의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고, 지역 산업단지 3~4개를 권역화해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등 지역산단을 연구개발(R&D) 기능이 복합된 창조 클러스터로 구축하기로 했다.

과거 간선망·산업인프라 위주의 사회간접자본(SOC)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공유할 수 있는 도시공원·주차장·보건소 등 생활인프라 시설로

쇠퇴도시 현황

쇠퇴 현행 10개 지역(중추도시권) / 쇠퇴 현행 1개 지역(대안도시권)
 - 사회지표: 5년간 평균 인구성장률 감소
 - 경제지표: 5년간 총 사업계수 변화율 감소
 - 환경지표: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 50%이상 (2010년 기준)



바꾼다.

국토부는 이달중 국토부·지역발전위원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권 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중추도시권의 대상 범위, 도시권별 발전전략, 지원방안 및 추진체계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해 '가칭' 도시권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권 육성 기본전략과 예산 확보 등 추진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광주시 박병호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시는 민선 5기 들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시재생과 신설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방식을 버리고, 도시 재생에 주력해 왔다"면서 "신도시 개발보다는 구도심을 재생하는 전략을 수립해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동·서·남구, 전남 목포·나주·순천·여수... 도시 쇠퇴현상 심각

중추도시권 포함 여부 주목

중추도시권을 육성하는 가장 큰 수단은 도시재생이다. 국토부는 낙후도가 심각한 도시쇠퇴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권역의 성장을 견인할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2005~2010년 기준 전국 144개 시·구 가운데 38%인 55개 지역에서 인구·사업체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도시쇠퇴가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쇠퇴 징후가 있는 지역까지 합하면 전체의 67%인 96개 지역이 쇠퇴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도시들은 49%

지역 중 34개 쇠퇴하는 등 수도권에 비해 쇠퇴현상이 심각해 도시재생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동구와 서구 남구 등 3개 자치구가, 전남은 목포와 나주, 순천, 여수 등 4개 시지역이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쇠퇴진행 조사는 지난 2010

년 기준으로 ▲5년 평균 인구 성장률 감소(사회지표) ▲5년 평균 총사업체수 변화율 감소(경제지표)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 50% 이상(환경지표) 등 3개 지표 중 2개 이상 해당 되면 쇠퇴진행, 1개면 쇠퇴 징후 시작 도시로 분류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광주시 5조원대 도심재생사업 탄력 받을 듯 고흥우주랜드 개발... 국내 대표 우주도시로

도시재생 어떻게

국토부의 도심 재생을 중심으로 한 '10+ α 지방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이 4일 발표됨에 따라 광주시의 5조원대 도심재생 사업(광주일보 2012년 11월 20일자 1·3면)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섬진강 동서통합지대와 고흥우주랜드 개발 계획도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돼 사업내용에 관심

이 쏠리고 있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는 총 사업비 5조2000억원을 투입해 양동복개구간 철거 등 낙후된 구도심을 뜯어고치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시는 지역현안과 도시재생을 연계한 '도시경제기반 재생 사업'으로 ▲양동복개구간 철거, 용봉천 생태하천 복원, 무등산 정상 군사시설 외곽 이전 등의 내용을 담은 광주(천)생태복원(사업비 2조 3000억원) ▲역사와 문화가 꽃피는

시 재생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전남은 '섬진강 동서 통합지대 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를 잇는 '섬진강 동서 통합지대'사업은 전남 여수·순천·광양, 경남 진주·사천·남해·하동 등이 그 대상이다. 전남도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섬진강 동서통합지대가 그동안 동서통합의 상징으로 추진해온 한려대교 건설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

다. 한려대교는 2020년까지 국비 1조 1770억원이 투입돼 여수~남해 구간에 해상 교량 4.4km를 포함해 길이 15.4km의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중이며,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외면받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탄력을 받고 있다.

또 섬진강 동서통합지대의 영향을 받아 목포~부산간 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도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날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한 고흥우주랜드 사업으로 고흥은 국내 대표 우주도시가 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우주랜드는 나로우주센터 주변 12만 3000㎡에 2016년까지 290억원을 투입해 우주항공관련 테마공원, 체험시설, 숙박시설인 '우주Inn(인)'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빛의만경

- 김중두



'산인한 4월' 이랍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FDA 미국 식품의약품 FDA허가 인증 ISO 9001 인증 ISO 13485 인증 CE 0120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GMP 의료기기 제조업체

■ 광주점(062)225-5110 ■ 광주점(062)651-4477 ■ 순천점(061)752-8845